

##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자신감과 아기행동 특성과의 관계 연구

개명대학교 간호대학  
신영희, 박언아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자신감과 아기행동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T광역시 소재의 K대학교 부속 병원 영유아상담실에서 신생아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94명의 산육기 신생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도구는 Wolke와 St. James-Roberts(1987)가 개발한 '어머니와 아기'에 관한 척도(Mother and Baby Scale: MABS)'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주요 결과는,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 정도는 보통정도 수준이었으며(평균 24.2점/55점), 어머니의 양육자신감 부족과 신생아의 보체는 행동과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50$ ,  $p=.00$ ). 어머니의 자신감 부족은 신생아들에게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단어 : 어머니의 양육자신감, 신생아 행동

### I. 서 론

오늘날 핵가족 제도에 살고 있는 한국의 젊은 어머니들은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역할모델이 부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은 바도 없다. 또한 병원 분만 후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의료인들로부터 신생아 간호나 신생아의 행동 특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퇴원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양육문제에 대해서 당황하고 혼돈에 빠진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어도 아기 양육에 가장 기본적인 수유, 목욕, 수면, 대소변 처리 등은 물론, 아기가 깨어있을 때, 울 때 어떻게 해주어야 할 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부모로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곽 1996; 홍 1999).

신생아는 자기의 요구를 행동으로 표현하며 경험 있는 어머니는 아기의 행동을 보고 요구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양육경험이 없거나 양육기술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기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기의 요구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기가 많이 보챈다' 또는 '다루기 어렵다'라고 부모가 호소하는 것은 실제 아기 기질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St James-Woberts & Wolke 1986; Wolke & St James-Roberts 1987). 즉, 아기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어머니는 문제를 그녀 자신의 무능력 탓으로 돌리고 아기를 다룰 때 긴장감을 가지며 아기가 점점 더 보채고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Wolke & St. James-Roberts 1986). Wolke와 St.

James-Roberts (1987)는 부모의 성격에 따라 아기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아기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자신감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자신감과 아기 행동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후 초기 어머니의 양육자신감과 아기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 1) 양육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 수유시 어머니의 자신감 및 모성으로서의 자신감 정도를 알아본다.
- 2) 신생아의 보체는 행동, 수유시 보체는 행동, 그리고 아기 기질에 대해서 알아본다.
- 3) 어머니의 양육자신감과의 아기 행동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9년 6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T 광역시 K 대학교 부속 병원 영유아상담실에 신생아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산후 2주에서 4주 이내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부모의 양육자신감은 일정 기간 동안 양육 경험이 있은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산모가 아기의 예방접종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한 사람들에 한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94명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어머니와 아기에 관한 척도(Mother and Baby Scale: MABS)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연구도구는 Wolke와 St. James-Robert(1987)가 개발한 ‘어머니와 아기에 관한 척도(Mother and Baby Scale: MABS)’이며,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계 미국인으로부터 원래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의 MABS는 크게 어머니의 양육자신감 부족을 측정하는 24문항과 아기행동 특성 10문항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신뢰도 검사에서 item to total correlation이 0.2 이하는 제거한 결과(Walki, Stricklan & Lenz 1984), 어머니의 양육자신감 18문항, 아기행동 31문항으로 축소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각 영역별 내적 타당도는 Cronbach 알파 .77에서 .87로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자신감부족 측정은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일상적 양육문제에 대한 자신감(11문항), 2) 수유시 자신감(4문항), 3) 모성으로서의 자신감(3문항)의 3개 하부영역으로 되어 있다. 일상적 양육 문제나 수유시 양육자신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모성으로서의 자신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많음을 의미한다.

신생아 행동 측정은 6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아기의 1) 일상시 보채는 행동(14문항) 2) 수유시 보채는 행동(7문항) 3) 민활성(6문항) 4) 아기 기질(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시 및 수유시 보채는 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아기가 잘 보채는 것을 의미하며, 민활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민활함을 의미한다.

### 2) 신생아 울음 양상

신생아 울음 양상은 St James-Roberts와 Alvarez(1996)가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난 일주일간 아기가 하루 평균 울음을 운 빈도와 양을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것을 오전(6-12), 오후(12-18), 저녁(18-24), 밤(24-6) 시간대로 나누어 기록하게 하였다. 아기 울음양상 측정을 객관적인 관찰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였지만, Wolke, Gray, & Meyer(1994)는 이 방법이 산모가 아기의 울음을 일기식으로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 3) 산모와 아기의 일반적 특성

그 외에 산모와 신생아에 관한 특성을 포함하였으며, 산모의 특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산모의 나이, 교육정도, 취업유무, 산과력, 분만방법 및 수유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신생아에 관한 사항으로는 아기의 성별, 출생기간, 출생순위를 조사하였다.

### 4) 자료분석

(1)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상적 양육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 수유시 어머니의 자신감, 그리고 모성으로서의 자신감의 3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신생아 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상시 보채는 행동, 수유시 보채는 행동, 민활성, 그리고 아기 기질의 4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어머니의 양육자신감과 신생아 행동특성 및 아기 울음 양상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으로 상관관계를 보았다.

(4) 1) 뿐만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 양육 자신감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변수의 속성에 따라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을 하였다.

## III. 연구성적

### 1. 산모와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

산모의 특성을 보면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령은 20-29세 군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대부분 고졸 이상(97.9%)의 전업주부(74.5%)였다. 산과력에서는 초산(52.1%)이 경산(42.5%)보다 약간 많았으며, 대부분 정상분만(71.3%)을 하였고, 신생아 수유는 혼합수유(47.9%)가 가장 많았으며, 전적으로 모유만 수유하는 경우는 25.5%에 불과하였다. 신생아의 특성을 보면 남아(54.3%)가 여아(45.7%)보다 약간 많았고, 평균 나이는 생후 약 3주였으며, 평균 출생일은 39.4주였다.

생후 한달 이내의 신생아 울음 양상을 개인차가 컸으며 하루 평균 5회(43.6%) 이하로 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하루 평균 15회 이상 최고 22회 우는 아기도 있었다. 또한 대체로 낮보다는 밤에 우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한 번 울 때 울음 지속시간은 2-3분이며, 하루 평균 10분 이내(55.1%)로 우는 아기가 대부분이었고, 30분 이상 우는 경우는 15.4%였다(<표 2>).

아기가 울 때 어머니의 반응을 알아보는 질문에서 어머니가 곧바로 달려가서 달래준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37%였고, 잠시 기다린다고 응답한 경우는 63%였다. 아기 달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안아준다’, ‘젖을 물린다’,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들려준다’였으며 가장 적게 사용

한 방법으로는 노리개 젖꼭지를 물리거나 포대기로 단단히 감싸주는 방법이었다. 아기는 하루 평균 18시간을 자며 낮과 밤의 수면시간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육아참여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에서 약 2/3

이상의 남편은 육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들은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시키기, 티끌시키기 등과 같은 양육활동보다는 아기와 함께 놀아주고 안아주는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1> 어머니와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分	빈도(백분율)
어 머 니	인 령	20 ~ 29세	53(56.4)
		30 ~ 39세	39(41.5)
		40 ~ 49세	2( 2.1)
학 력	중	졸	2( 2.1)
	고	졸	42(44.7)
취업현황		대출이상(전문대 포함)	50(53.2)
	전 업	70(74.5)	
	취 업	24(24.5)	
출산경험	초 산	49(52.1)	
	경 산	40(42.5)	
	무 용 담	5( 5.3)	
분만경험	정상분만	67(71.3)	
	제왕절개	27(28.7)	
수유방법	모유수유	24(25.5)	
	인공수유	25(26.6)	
	혼합수유	45(47.9)	
신 생 아	성 별	남	51(54.3)
		여	43(45.7)
나 이*		2.8주(± .86)	
재태기간*		39.4주(± 1.17)	

\*평균(± 표준편차)

<표 2> 신생아의 울음 및 수면 양상

특 성		구 分	실 수(백분율)
울음 빈도	1 ~ 5회/일	41(43.6)	
	6 ~ 10회/일	31(32.8)	
	11 ~ 15회/일	10(10.7)	
	16 ~ 25회/일	4( 4.3)	
울음 시간	1분 ~ 5분/일	25(32.1)	
	6분 ~ 9분/일	18(23.0)	
	10분 ~ 19분/일	11(14.1)	
	20분 ~ 29분/일	12(15.4)	
	30분 ~ 75분/일	12(15.4)	
수면 시간*	낮	9.6(± 1.35)	
	밤	9.1(± 1.86)	

\*평균(± 표준편차)

<표 3> 남편의 육아참여정도

구 분	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한다
	n(%)	n(%)	n(%)
기저귀를 갈아준다	25(26.6)	29(30.9)	39(41.5)
복육시킨다	27(28.7)	29(30.9)	28(29.8)
우유를 탄다	33(35.1)	24(25.5)	28(29.8)
우유를 먹인다	21(22.3)	26(27.7)	39(41.5)
트램시킨다	29(30.9)	29(30.9)	34(36.2)
안아준다	7( 7.4)	24(25.5)	62(66.0)
아기랑 놀아준다	12(12.8)	29(30.9)	52(55.3)
울 때 달래준다	13(13.8)	36(38.3)	44(46.8)

## 2. 양육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

양육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을 알아보는 11문항은 최저 0점에서 최고 55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많을수록 자신감이 부족함을 의미하는데, 평균 24.2점( $SD=8.9$ )으로 응답자들의 양육문제에 대한 자신감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수유시 자신감을 알아보는 문항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이 가능하며, 평균 16.3점( $SD=3.0$ )으로 자신감이 비교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어머니의 양육자신감

구 분	평균 ± 표준편차	범 위
양육문제에 대한 자신감	24.2(±8.9)	0 ~ 43
수유시 자신감	16.3(±3.0)	8 ~ 20

어머니의 양육자신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원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항들을 0과 1, 2와 3, 4와 5로 3:1로 묶었을 때 11문항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신이 없다고 응답한 문항들은 '아기 키우는 법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다', '아기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나', 그리고 '나는 대체로 아기를 잘 돌보고 있다'의 3문항이었다. 반면에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문항들은 '나는 아기가 울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아기를 안다가 떨어뜨렸을까 겁이 났다', '나는 아기 키우는데 자신이 없다'의 4 문항이었다. 그러나 수유시 자신감을 측정하는 4문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자신감이 없다'는 쪽에 응답하였다(표 5).

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묻는 문항은 원래 -3에서 +3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3에서 1까지를

'아니다'로, 0에서 +3까지를 '그렇다'로 묶었을 때, '아기 키우는데 자신감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9%이었으며, '아기 키우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거나,'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71%와 67%였다(표 5).

## 3. 신생아 행동 특성

신생아의 행동 특성은 일상시 보채는 행동, 수유시 보채는 행동, 민활성, 및 기질을 측정하였다. 신생아

의 일상시 보채는 행동은 최저 0점에서 최고 70점이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많이 보침을 의미하는데, 평균 25.9점( $SD=12.4$ )으로 어머니들이 아기가 별로 보채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수유시 보채는 행동은 최저 0점에서 최고 35점이 가능한데 평균 27.1점( $SD=6.0$ )으로 수유시에는 아기가 비교적 많이 보채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아기의 민활성은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이 가능한데 평균 19.9점( $SD=5.4$ )으로서 응답자들이 대체로 아기가 민활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아기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은 아기가 비교적 조용하고(평균 1.9), 잠을 잘 자며(평균 4.7), 반응을 잘하고(평균 4.1), 까다롭지 않은 것(평균 1.5)으로 인식하였다. 아기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들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어머니의 양육자신감 문항에 대한 응답율

구 분	아니다 n(%)	보통이다 n(%)	그렇다 n(%)
	n(%)	n(%)	n(%)
<b>양육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b>			
아기가 울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52(55.3)	34(36.2)	8(8.5)
나는 아기 키우는 것이 서툴게 느껴진다	28(29.8)	47(50.0)	17(18.1)
이 시기 동안 아기 키우는 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다	6( 6.4)	22(23.4)	66(70.3)
아기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	24(25.5)	27(28.7)	41(43.6)
퇴원 후 집에 와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다	33(44.7)	30(31.9)	21(22.4)
나는 대체로 아기를 잘 돌보고 있다*	4( 4.3)	53(56.4)	35(37.2)
나는 아기를 안다가 떨어뜨릴까봐 겁이 났다	57(60.6)	23(24.5)	14(14.9)
아기가 보챌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본적이 있다	32(34.1)	38(40.4)	24(25.5)
아기를 만지다가 다치게 할까봐 걱정되었다	34(36.1)	33(35.1)	27(28.7)
나는 아기 키우는데 자신이 없다	45(47.8)	42(44.6)	5( 5.4)
나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 6.4)	60(63.8)	28(29.8)
<b>수유시 어머니의 자신감</b>			
내가 긴장하기 때문에 아기에게 젖 먹이는데 문제가 있다	6( 6.4)	8( 8.5)	57(60.6)
젖 먹이는 법을 잘 몰라서 아기에게 젖을 못 먹인다	50(53.3)	10(10.7)	55(58.5)
산후통 때문에 아기에게 젖 먹이는데 문제가 있다	9( 9.5)	9( 9.6)	52(55.4)
아기에게 젖 먹일 자신감이 없어서 젖을 먹이지 못했다	1( 1.1)	9( 9.5)	60(63.9)
<b>모성으로서의 자신감</b>			
아기 키우는데 자신이 있다	10(10.6)		84(89.4)
아기 키우는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	27(28.8)		67(71.3)
작은 일에도 불안해 한다	30(31.9)		63(67.0)

\* 역환산한 값임

<표 6> 신생아 행동 특성

구 분	평균±표준편차	범 위
일상시 보체는 행동	25.9(+12.1)	2 ~ 57
수유시 보체는 행동	27.1(+ 6.0)	13 ~ 35
민활성	19.9(+ 5.4)	5 ~ 29

<표 7> 신생아 행동 문항에 대한 응답률

구 분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n(%)	n(%)	n(%)
<b>일상시 보체는 행동</b>			
아기가 잠자기 전에 보챈다	42(44.7)	30(31.9)	22(23.4)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은데도 보체거나 울 때가 있다	30(31.9)	38(40.4)	26(27.7)
지난 24시간 동안 젖 먹이고 나서도 아기가 칭얼대어서 달래주어야 했다	55(58.5)	25(26.6)	13(13.8)
아기가 젖 먹고 나서도 칭얼대기 때문에 흔들어 주거나 안아 주곤 한다	45(47.9)	27(28.7)	21(22.4)
아기가 젖 먹고 나서도 칭얼대거나 운다	66(70.3)	21(22.4)	7( 7.5)
젖 먹을 때마다 아기의 기분이 달랐다	47(46.8)	38(40.4)	10(10.6)
아기가 어떤 때는 쉽게 달래지고 어떤 때는 잘 달래지지 않는다	29(30.9)	37(39.3)	27(28.8)
지난 24시간 동안 배에 가스가 차거나 팔꾹질 때문에 잠을 꼭 자지 못했다	51(54.3)	29(30.8)	11(11.7)
밤에는 젖 먹은 후 다음 젖 먹는 시간이 뇌기 전에 보체거나 운다	69(73.4)	19(20.2)	5( 5.3)
아기를 달래기 위해 배가 빵빵하도록 먹여본 적이 있다	32(34.1)	36(38.3)	24(25.5)
아기는 젖 먹은 후 나음 젖 먹을 시간이 되기 전에 보챈다	64(68.1)	24(25.6)	4( 4.3)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왔다 갔다 했다	34(36.1)	28(29.8)	31(33.0)
수유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23(24.4)	40(42.5)	31(33.0)
아기는 젖을 먹이고 나서 앙아주지 않으면 오랫동안 보챈다	67(71.3)	21(22.3)	5( 5.3)
<b>수유시 보체는 행동</b>			
젖 먹는 동안 아기는 보체거나 운다	3( 3.2)	15( 6.9)	51(54.2)
아기는 젖먹을 때마다 칭얼댄다	1( 1.1)	18(19.2)	51(54.3)
젖 먹을 때 아기의 기분은 그때마다 다르다	9( 9.6)	31(33.0)	30(31.9)
아기가 하도 뻘대고 차기 때문에 젖꼭지를 입에 물리기 힘들다	11(11.7)	21(22.3)	37(39.4)
아기가 젖을 잘 빨려고 하지 않는다	7( 7.4)	6( 6.4)	57(60.6)
지난 24시간 동안 배에 가스가 차거나 팔꾹질, 복통 때문에 아기가 젖을 주지 못했다	5( 5.3)	14(14.9)	51(54.3)
지난 24시간 동안 아기가 우거나 보체기 때문에 젖꼭지를 입에 물리기 힘들다	30(32.0)	11(11.7)	56(59.6)
<b>민활성</b>			
아기에게 말을 하면 아기가 알아채는 것 같다	20(21.2)	45(47.9)	28(29.8)
아기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13(13.8)	30(32.0)	50(53.2)
아기를 안으면 아기가 내 몸에 포옹 안긴다	7( 7.5)	25(26.6)	62(66.0)
아기는 젖 먹을 때 나와 눈을 맞춘다	15(16.0)	49(52.1)	26(27.6)
아기가 또록또록 하다	3( 3.2)	25(26.6)	66(70.3)
아기에게 자극을 주면 반응을 잘 한다	4( 4.2)	37(39.3)	51(54.3)
<b>아기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b>			
아기가 짜증을 잘 낸다	12(12.8)	82(64.2)	
아기가 잠을 잘 잔다	8( 8.3)	85(90.5)	
아기의 반응이 민활하다	12(12.8)	81(81.8)	
아기가 까다롭다	7( 7.5)	86(91.5)	

#### 4. 어머니의 양육자신감과 신생아 행동특성과의 관계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자신감과 아기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을 해 본 결과, 양육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수록 어머니는 아기가 더 보채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r=.50$ ,  $p=.00$ ), 수유시 자신감이 부족한 어머니일수록 수유 중에 아기가 많이 보채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r=.59$ ,  $p=.00$ ). 그러나 양육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과 신생아의 민활성이나 수유시 보채는 행동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양육자신감과의 관계에서는 초산모일수록 양육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r=-.32$ ,  $p=.000$ ), 나머지 변수들, 즉 어머니의 나이, 교육수준, 취업유무, 아기 성별은 어머니의 양육자신감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행동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에서는 평소에 잘 보채는 아기는 수유 중에는 덜 보채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r=-.40$ ,  $p=.00$ ), 첫아기일수록( $r=-.32$ ,  $p=.01$ ),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r=-.34$ ,  $p=.00$ ), 울음을 많이 울수록( $r=.29$ ,  $p=.03$ ) 더 보채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 $r=-.32$ ,  $p=.00$ ). 육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이 어머니에게 자신감을 저하시켰으리라 사료된다.

Wolke와 St. James-Roberts(1986)는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은 어머니로 하여금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자신감이 부족한 어머니는 아기를 다룰 때 긴장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아기를 실세보다 더 보채고 다루기 어렵다고 그에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수유자신감 부족과 수유시 신생아의 보채는 행동이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20대의 초산모들이므로 수유기술이 부족하여 수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것이 아기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신생아의 보채는 행동과 수유시 보채는 행동간에 역상관관계( $r=-.40$ ,  $p=.00$ )가 나타난 것은 수유량의 부족과 관련이 있으리라 본다.

어머니의 양육자신감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양육자신감 정도는 보통수준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육기 중에 가족이나 주위 친지들로부터 아기 양육에 관한 도움

<표 8> 양육자신감, 수유자신감, 보채는 행동, 수유시 보채는 행동, 출생순위 및 수면시간과의 상관관계

	양육자신감	수유자신감	보채는 행동	수유시 보채는 행동	출생순위	수면시간
수유자신감	-.28*	1.00				
보채는 행동	.50**	.33**	1.00			
수유시보채는 행동	-.12	.59**	-.40**	1.00		
출생순위	-.32**	.08	.16	.04	1.00	
수면시간	-.05	.16	-.33**	.21	.02	1.00

\* p <.05 \*\*p <.01

#### IV. 논 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자신감과 아기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산후 한달 이내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자신감이 부족한 어머니일수록, 아기가 많이 보채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50$ ,  $p=.00$ ). 이는 아기의 행동반응이 부모의 반응과 정서에 영향을 주고 또는 반대로 부모의 부정적 정서나 자신감 결여가 아기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은 지지하였다(Prechtl 1963; Robson & Moss 1970).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자신감과의 관계에서 초산모일수록 양육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이 시기동안 신생아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잠을 자기 때문에 울거나 보채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과, 연구 대상 신생아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18시간 이상이며, 보채는 행동 접수가 비교적 낮았던 점, 그리고 대부분의 신생아 하루 평균 울음시간이 10분 이내였으며, 30분 이상 우는 아기는 15% 정도에 불과한 점이다.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신생아의 울음시간이 다른 시기의 영아들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lvarez & St. James-Roberts 1996). 다만 차이점은 선행연구에서는 영아들이 저녁시간에 많이 우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Brazelton 1962; Hunziker & Barr 1986; St. James-Roberts & Halil 1991;

Alvarez & St. James-Roberts 1996) 반해, 본 연구에서는 밤 시간에 더 많이 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즐튼 박사는 아기가 울 때 대부분 스스로 진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므로 양육자가 끝바로 달래주는 것보다는 잠시 기다렸다가 아기가 필요한 만큼 만의 중재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하였다(신 등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아기가 울면, 잠시 가다리다가 달래주긴 하지만 아기를 달래는 방법에서는 단계적으로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기를 안아주거나 흔들어주는 등 강도 높은 중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본 연구결과에서 신생아의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크게 느끼지 않았으나, 양육자신감부족과 신생아의 보채는 행동과는 궁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양육자신감부족을 느끼는 어머니일수록 아기가 보채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반대로 아기가 보챌수록 어머니는 양육자신감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연구방법상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 크기가 작았던 점이다. 표본 크기가 작을수록 모집단의 대표성이 낮고, 표본 오차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Polit & Hungler 1991),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사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사결과에서 item to total correlation 값이 낮아 9문항을 삭제한 점과 서구 문화에 맞도록 개발된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설문지의 문항수가 많았던 것도 문제점이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의 산육기 산모들에게 많은 문항 수의 설문조사는 연구 참여도 저하와 불성실한 응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을 산후 한달 이내의 산모들로만 제한하였고, 또한 대부분 초산모들이었기 때문에 육아 경험미숙 수준이 비슷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종속변수의 변량을 적게 하여 다른 인구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리라 본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자신감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생아 행동 측정도 어머니의 주관적 평가와 함께 객관적 관찰법을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V. 결 론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보통수준이었으나, 어머니의 양육자신감부족과 신생아의 보채는 행동과는 궁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머니들이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부족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시기의 신생아들을 하루의

대부분을 잠을 자고 울거나 보채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또한 전통적인 산후조리 관습상 산모는 가족과 친지들의 지지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영아가 발달함에 따라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기술과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때, 준비가 덜된 부모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부모의 자신감 부족은 자녀의 행동과 유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되기 전의 짧은 여성과 남성들을 위하여 부모역할, 아동행동 특성 및 육아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연희, 산모교육의 효과 측정 : 산육기 자가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정도와 자신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신영희, 박병희, 김천수(공역). 브레즐튼 신생아 행동 평가법. 계명대학교, 대구. 1999
- 홍강의, 위기에 처한 부모역할과 아동양육. 정신치료 1999;14:43-55
- Alvarez M, St. Jame-Roberts. Infant fussing and crying patterns in the first year in an urban community in Denmark. *Acta Paediatr* 1996; 85:463-466
- Brazelton TB. Crying in infant. *Pediatrics* 1962; 29:579-588
- Brazelton TB.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2nd ed). J.B. Lippincott. Philadelphia. 1984
- Humziker UA, Barr RG. Increased carrying reduces infant crying :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ediatrics* 1986;77:641-648
- Jacobson JL, Fein GG, Jacobson SW, Schwartz PM. Factors and clusters for the Brazelton Scale : An investigation of the dimensions of neonatal behavior. *Anesthesia & Analgesia* 1984;64: 335-342
- Polit DF, Hungler BP. Nursing research : Principles and methods(4th ed). JB Lippincott Co. Philadelphia. 1991
- Prechtl HFR. The mother-child interaction in babies with minimal brain damage. In BM Foss(Ed) :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vol. 2, Methuen. London, 1963
- Robson KS, Moss HA.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maternal attachment. *Journal of Pediatrics* 1970;77:976-985
- St. James-Roberts I, Alvarez M. Infant fussing and crying patterns in the first year in an urban community in Denmark. *Acta Paediatrica* 1996;85:463-466

- St. James-Roberts I, Halil T. Infant crying patterns in the first year : Normal community and clinical findings. *J child Psychol Psychiatr* 1991;32:951-968
- St. James-Roberts I, Wolke D. Bases for a socially referenced approach to temperament. In Kohnstamm GA(Ed) : Temperament Discussed : Temperament and Development in Infancy and Childhood. Swets & Zeitlinger. Lisse, the Netherlands. 1986 pp 17-26
- Vaughn BE, Bradley CF, Joffe LS, Siefer R, Barglow P. Maternal characteristics measured prenatally are predictive of temperamental difficulty on the Carely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Developmental Psychology* 1987; 23:152-161
- Walts CF, Strickland O, Lenz E. Measurement in nursing research. FA Davis, Co. Philadelphia. 1984
- Wolke D, Gray P, Meyer P. Validity of the crying pattern questionnaire : A research note. *J Reprod Infant Psychol* 1994;12:105-114
- Wolke D, St James-Roberts I. Maternal affective-cognitive processes in the perception of newborn difficultness. In Kohnstamm GA(Ed.) : Temperament Discussed : temperament and Development in Infancy and Childhood. Swets & Zeitlinger. Lisse, the Netherlands, 1986, pp 27-34
- Wolke D, St James-Roberts I. Multi-method measurement of the early parent-infant system with easy and difficult newborns. In Rauh H, Steinhausen HC(Eds) : Psychobiology and Early Development. North-Holland/Elsvier. Amsterdam, 1987, pp 49-70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aternal competence and infant behaviors

**Yeong-hee Shin, Eun-A Park**  
*Keimyung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 =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aternal competence in child care and behaviors of their infants. Ninty four postpartum mothers visiting child health clinic for routine vaccination for their babies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Data analyses were based on a self-report of Mother and Baby Scale(MABS: Wolke and St. James-Robert,1987) completed by each mother.

The major find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level of maternal competence was moderate(average 24.2/55 points). Lack of maternal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infant's irritability( $r=.50, p<.00$ ). This appears to mean that mother's inexperience or psychological indecisiveness may be sensed by their infants and that those may have been reflected to the infant's behavior as an irritability.

**Key words :** *Maternal competence, infant behaviors*

---

(최초 접수일 : 8월 23일, 최종 수정원고 접수일 : 12월 3일)